# 소녀들도 '월드컵 4강 신화' 쓴다

## U-20 女대표팀 "최종목표는 우승"… 26일 새벽 멕시코와 8강전

2010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첫 8강 진출에 성공한 태극낭자들이 '꿈의 4강 무대'에 도전한다.

최인철(38) 감독이 이끄는 U-20 여자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새벽 1시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의 8강 상대인 멕시코는 조별리그 C조에서 1승2무(5골4실)로 나이지리아(1승2무·4골3도움)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선두를 차지해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사상 첫 8강 진출에 성공한 멕시코는 조별리그에서 드러난 전력만 따진다면 한국에 버거운 상대는 아니다.

멕시코는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무패행진(1승2무)을 일궈냈지만 5골을 얻고 4골을 내주는 박빙의 승부로 힘겹게 8강에 합류했다.

반면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미국에 0-1로 패했지만 1, 2차전에서 무려 8골을 뽑아내고 단 2실점만 하는 최고의 경기력으로 가볍게 8강에 올랐다.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팀의 주포인 지소연(한양여대)을 후반에 투입하고, 세트피스 전담 키커인 김나래(여주대)를 쉬게 하면서 체력안배를 통해 8강전에 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특히 대표팀은 비디오 분석관이 지난 22일 치러진 멕시코-나이지리아 경기를 직접 비디오에 담아와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전력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최인철 감독은 "멕시코는 기술축구보다 힘에 기반을 둔 축구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한다"며 "멕시코를 만난 게 나쁘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의 강점은 역시 지소연의 뛰어난 드리블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후방에서 킥이 좋은 김나래의 중거리포와 정확한 크로스에 있다.

지소연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는 활약을 펼쳤고, 김나래는 통렬한 중거리포로 상대팀들의 밀집수비를 뚫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지소연은 FIFA 홈페이지에서도 '조별리그에서 최고로 빛난 별'(tournament's brightest stars)이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눈에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김나래는 지난 17일 한국의 8강 진출을 확정하던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남자선수들도 쉽게 넣지 못할 30m 장거리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며 지소연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이 멕시코를 이기면 독일-북한전 승자와 4강전에서 맞붙게 돼 상황에 따라 남북대결도 점쳐볼 수 있다. /연합뉴스

**■ U-20 여자월드컵 8강 일정**

▲24일(토) 스웨덴-콜롬비아(오후 6시30분·빌레펠트)
▲25일(일) 독일-북한(새벽 1시·보훔) 미국-나이지리아(오후 6시30분·아우크스부르크)
▲26일(월) 한국-멕시코(새벽 1시30분·드레스덴)

# 주말·휴일 축구바람

## '상무' 영광서 '전남' 광양서 K리그 후반기 첫 홈 경기

주말 전남에 축구 바람이 분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24일 오후 7시 제 2의 홈구장 영광스포티움에서 FC 서울과 K-리그 1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 드래곤즈는 25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 광주·전남 모두 후반기 첫 홈 경기다.

상무는 3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 최성국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정규리그 9위를 달리고 있는 상무는 후반기 다시 만난 서울을 상대로 승점을 추가, 순위싸움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서울에게도 상무와의 대결은 놓칠 수 없는 경기다. 3위 서울은 승점 1점 차이로 1위 제주를 쫓고 있다. 주말 경기의 승패에 따라 선두질주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상무는 '리틀마라도나' 최성국과 김동현 그리고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주장 최원권이 공격 전면에 나서 서울 골문을 노리고 있다. 3연승 중인 서울은 남아공에서 돌아온 이승렬과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하대성·정조국을 내세워 맞불 작전에 나선다.

중위권 탈출을 노리는 상무와 1위 탈환을 겨냥한 서울의 접전이 영광 그라운드를 달굴 전망이다.

전남은 후반기 첫 승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전남은 정규리그 후반기 두 경기에서 1무1패를 기록하면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전남은 슈바·인디오·지동원의 삼각편대를 앞세운 빠른 공격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과의 FA컵 16강에서 7골을 몰아넣은 전남은 그 기세를 몰아 지난주 포항을 4-2로 격파했던 부산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인디오와 펠리피 두 용병 대결도 흥미롭다. 올 시즌 경남에서 전남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인디오는 6골3도움을 기록하면서 전남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부산의 '신입용병' 펠리피는 자신의 데뷔전이었던 포항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터트리며 부산의 새바람을 예고했다.

승리를 위해서 전남은 새 얼굴 펠리피와 함께 '전남 킬러' 정성훈의 길목도 차단해야 한다. 부산의 공격수 정성훈은 지난 시즌 전남을 상대로 4골을 넣으며 공격본능을 과시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0 MBC배 전국수영대회 남자 대학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마린보이' 박태환이 1위로 터치패드를 찍은 뒤 기록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박태환 광저우 金물살 보인다

## 자유형 200m 대회신 우승

박태환(21·단국대)이 자유형 2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가볍게 1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은 23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0 MBC배 전국수영대회 나흘째 남자 대학부 자유형 결승에서 1분47초41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 때 작성한 한국 및 아시아 신기록(1분44초8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종전 대회 기록(1분53초21)을 크게 줄였다.

박태환은 전날 개인혼영 200m(2분01초78)에서도 대회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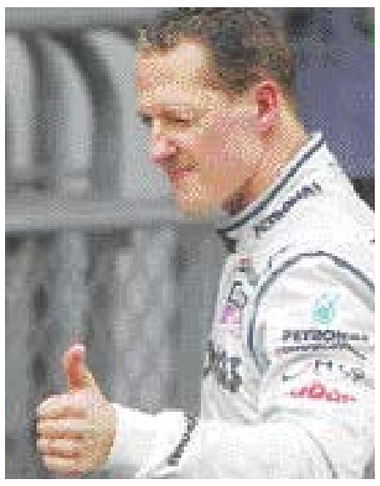
박태환은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1차 호주 전훈을 마무리하며 지난 2월 뉴사우스웨일스스테이트오픈에 참가해 세운 기록(1분46초98)보다 뒤진 것을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국내 여러 선수와 뛸 수 있어 좋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한 세 종목 모두 결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쓴맛을 단단히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마 때와 몸 상태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그때랑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것도 되살리고 싶지 않은 기억 때문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건재를 과시하려는 박태환은 일단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바인에서 열릴 2010 팬퍼시픽대회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선빈 월간 MVP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이 지난 22일 광주 밝은안과21이 시상하는 6월 월간 MVP를 수상했다. 김선빈은 지난 6월 한달간 96타수 28안타 8득점 7타점 타율 0.292를 기록했다. 김선빈은 시상금 100만원 중 불우이웃돕기 적립금으로 50만원을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 내년에도 그랑프리 참가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1·독일)가 2011년에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 계속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25일 독일 호켄하임에서 열리는 2010시즌 11번째 경주를 앞두고 있는 슈마허는 "내년에도 계속 드라이버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을 끝으로 은퇴했던 슈마허는 올해 다시 F1 머신에 올랐으나 10차례 레이스에서 4위에 두 차례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일 만큼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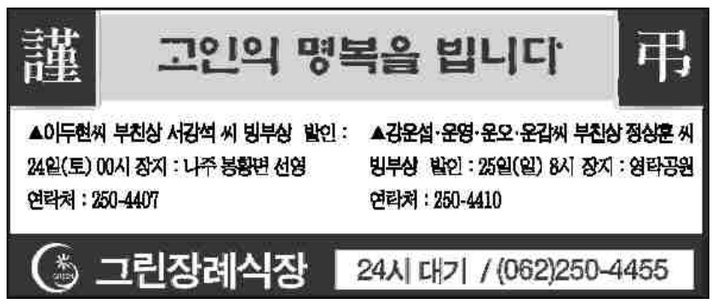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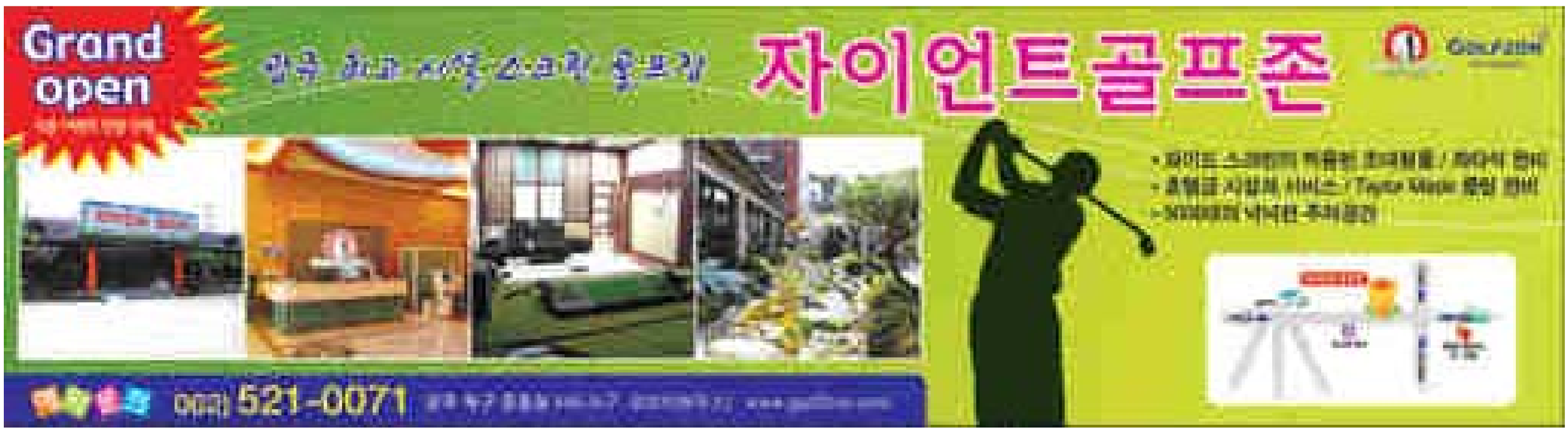
슈마허는 "3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우승하기란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슈마허는 랭킹 포인트 36점을 얻어 이번 시즌 출전한 25명의 드라이버 가운데 9위에 머물고 있다. 1위 루이스 해밀턴(영국)의 145점과는 격차가 크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부음**

▲김정순씨 별세 송해섭·화섭·길자·명자씨 모친상=발인 24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재홍씨 별세 필호·창호·길임·길순·길례·양례·오례씨 부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임영모씨 별세 병일·병문·병삼·병기·선희·선미·향미씨 부친상=발인 2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